

농민 직업병 예방 및 진료활동 강화

관리번호	4-6		
사업명	농민 직업병 예방 및 진료활동 강화	추진현황	진도
		완료(계속)	100%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진료민원팀	담당자	김영순(☎ 6476)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5. 3. ~ 10. 27.
- 대 상 : 10개소 오지마을
(풍기, 이산, 평은, 문수, 장수, 봉현, 순흥, 단산, 부석2)
- 인 력 : 6명(한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 추진내용 : 한방진료, 건강검사, 구강검사 등

■ 추진상황(실적)

- 농번기 야간 한방 순회진료
 - 2016년 39회(한방진료 733명, 건강검사 420명, 구강검사 240명)
 - 2015년 20회(한방진료 523명, 건강검사 544명)
 - 2014년 9회(한방진료 317명, 건강검사 203명)
- 오지마을 순회진료
 - 2015년 2회(환자진료 60명)
 - 2014년 7회(환자진료 246명)
- 세라밴드 운동 및 실버체조
 - 2016년 139회 4,110명
 - 2015년 134회 4,210명
 - 2014년 87회 3,733명

■ 향후 추진계획

- 오지마을 대상 지속적인 야간한방진료 실시로 섬김행정 실천
- 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물



<한방진료>



<건강검사>



<구강검사>

영남대일 2016년 11월 03일 목요일 008면 경북도

영주시 농민 건강증진·섬김행정 '한번에'

찾아가는 아간한방 순회진료 성료

영주시보건소(소장 김희환)는 2회 농민기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찾아가는 아간한방 순회진료'가 주민들의 높은 반응 속에 모두들 만족하기를 함으로 올해 사업은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아간 한방 순회진료'는 한의사, 간호사, 재활원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반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한방진료, 건강검사,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16년 11월 3일(목) 영주시보건소(소장 김희환)는 2회 농민기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찾아가는 아간한방 순회진료'가 주민들의 높은 반응 속에 모두들 만족하기를 함으로 올해 사업은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주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청남도 고령에서 올해 10회로 확대 운영을 예상하며 주민 7,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영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영주시 보건소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예방의 주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최혜상 기자

<지역신문에 게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과 장	김인석	☎ 639-6472
		진료민원팀장	김영순	☎ 639-6476
		주무관	김혜경	☎ 639-6478